농림부, 구제역 방역소독 대폭강화

전국적인 비가 예상됨에 따라 구제역 방역소독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.

농림부는 5월 6-7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비가 오기 전에 일제 방역소독을 하도록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선 방역 관계자와 축산농가에 지시했다.

또 우천시에도 축사의 소독을 진행하고 비가 그친 뒤 또다시 축사 안팎을 일제히 소독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방역소독의 이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키로 했다.

수의과학검역원은 농가마다 여러차례 소독이 이뤄졌고 비가 공기에 의한 전파를 오히려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비 자체가 큰 우려 대상은 아니나, 우천시 습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바이러스가 다소 활성화 될 수 있는 만큼 소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한편, 돼지 구제역 관련 신고는 5월 4-5일에 이어 6일 현재까지 추가로 접수되지 않고 있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05/07>